

조선시대 종묘 정전 및 영녕전의  
건물규모의 변천  
(朝鮮時代 宗廟 正殿 및 永寧殿의  
建物規模의 變遷)

金 東 旭  
(京畿大學校 教授)

목 차

- |                   |                  |
|-------------------|------------------|
| 1. 머릿말            | 3. 永寧殿의 建物規模의 變遷 |
| 2. 宗廟正殿의 建物規模의 變遷 | 5. 맺는말           |

1. 머릿 글

역대 선왕(歷代 先王)들의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하는 곳인 종묘(宗廟)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重要視)된 건물이며, 특히 유교적 예(儒敎的 禮)와 질서(秩序)를 존중한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종묘는 다른 어떤 통치시설(統治施設)보다도 더 중요시 되었다.

조선시대의 종묘는 건물 구성상 한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이 건물이 「동당이실(同堂異室)」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동당이실이란, 하나의 지붕으로 된 한 건물 안에 다른 여러개의 실(室)을 마련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러왕들의 신위(神位)를 모신 각 실(室)을 한 건물안에 실(室)만 따로 해서 모시는 것을 가리킨다.

종묘를 동당이실(同堂異室)로 구성한 결과, 이 건물은 다른 건물에서 유례(類例)를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건물이 옆으로 길게 뻗어나간 점이며 더욱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거(死去)하는 왕(王)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물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묘건물은 조선왕조의 최고제례(最高祭禮) 건축이라는 점 외에도 이 건물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축(增築)·확장(擴張)되었다는 사실에서 건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종묘건물의 증축과정은 이 건물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조선시대에는 종묘를 처음 창건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정전과 별도로 영녕전(永寧殿)이라는 부속건물을 세웠다. 영녕전은 종묘 정전의 신실(神室)에 여유가 없게 되자 먼 조상

또는 정전에 모시지 않아도 되는 신주(神主)를 모시는 별묘(別廟)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신주(神主)를 모셔야 할 왕(王)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부득불 종묘 정전과 영녕전은 건물 간수(間數)를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묘 정전은 처음 7간(間)으로 지었는데 조선말기에 최종적으로 지어진 것을 보면 19간(間)이 되었고 영녕전은 처음 정전4간(間)에 좌우익실(左右翼室) 각1간(間)으로 지어졌다가 마지막에는 정전4간(間)에 좌우익실 각6간(間)으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變化)가 생긴 그 중간에는 수 차례에 걸친 증축(增築)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증축과정(增築過程)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 특별시사(特別市史)』(고적편(古蹟編))(1963)와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제(第)1권(卷)~제(第)5권(卷)) 및 문화유적편(1976~1986)등의 문헌에 상세히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상기 문헌에 정리된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증축과정에는 부정확(不正確)하게 서술된 부분, 또는 불분명(不分明)하게 서술된 부분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종묘 정전의 경우 최종적으로 19간(間)이 된 시기는 실제와 달리 고종(高宗)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고, 영녕전의 경우 임진왜란시 소실되었다가 재건된 건물규모가 불분명하고 역시 최종적인 건물증축 시기가 밝혀져있지 않다. 이러한 부정확한 또는 불분명한 기술이 나오게 된 이유의 하나는 상기 문헌들이 양 건물의 증축과정을 살피는 전거(典據)로 주로 왕조실록(王朝實錄)을 인용하고 있고 그 밖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같은 간접적인 사료(史料)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묘와 영녕전의 증축에 대하여는 왕조실록과 같은 간접적인 사료(史料)가 아닌 증축공사 당대에 각 공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1차사료(1次史料)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규장각(奎章閣)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員) 도서관(圖書館)에는 이러한 류(類)의 사료(史料)로 『종묘수리도감(宗廟修理都監)』(인조15년(仁祖15年)(1637),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현종8년(顯宗8年)(1836), 『종묘개수도감의궤(宗廟改修都監儀軌)』(영조2년(英祖2年)(1725), 『종묘영녕전증건도감의궤(宗廟永寧殿增建都監儀軌)』(현종2년(顯宗2年)(1836)등의 사료(史料)가 있고 이 밖에 종묘에 관한 일지류(日誌類)의 문서로 『종묘의궤(宗廟儀軌)』(숙종23년(肅宗23年)(1677) 및 『종묘의궤(宗廟儀軌)』(순조16년(純祖16年)(1816),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영조17년(英祖17年)(1741), 『종묘의궤속록(宗廟儀軌續錄)』(헌종8년(憲宗8年)(1842)등이 있다. 이들 문헌(文獻)들은 모두 국가에서 편찬하여 지방 각 사고(史庫)등에 보관해오던 것들로 후대(後代)에 가필(加筆)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사료(史料)들이며 거의 낙장(落帳)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있다.

이 사료(史料)들은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구체적 공사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사료들을 통하여 종래에 미흡하게 알려졌던 양 건물의 증축내용은 보다 정확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필자(筆者)는 상기 사료(史料)들을 가지고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증축과정에 대하여 『종묘건축(宗廟建築)의 복원적연구(復原的研究)-조선후기(朝鮮後期) 종묘정전(宗廟正殿) 및 영녕전(永寧殿)의 변천(變遷)에 대하여』(경기대학교 논문집 제20집(京畿大學校 論文集 第20輯)(1987)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위의 글에서는 주로 조선후기의 증축과정을 밝힌 반면 창건에서부터 조선초기의 변화에 대하여는 미진한 채로 남겨 두었다.

본고(本稿)는 위의 글을 토대로 하면서 조선전기의 증축과정에 대한 미진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조선시대 전체를 통한 종묘정전과 영녕전의 증축과정을 정리해 본

것이다.

## 2. 종묘정전(宗廟正殿)의 건물규모(建物規模)의 변천(變遷)

### (1) 창건시(創建時)의 종묘정전(宗廟正殿)의 규모(規模)

태조4년(太祖4年)(1395)에 창건될 때의 종묘 정전은 정면7간(正面7間)의 규모였다.

창건시의 종묘 정전의 규모에 대하여는 태조실록(太祖實錄)에 「대묘(大鎚)의 대실(大室)은 7간(7間)이며 당(堂)은 같게 하고 실(室)은 따로 하였다. 안에 석실5간(石室5間)을 만들과 좌우의 익랑은 각각 2칸씩이며...」라고 밝히었고, 성종(成宗)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書例)』에는 같은 규모의 그림이 나와있다. 또한 왕조실록(王朝實錄)의 여러 기록에서 창건시의 정전이 7간(7間)이었음을 적은 기사를 볼 수 있다.<sup>1)</sup>

### (2) 명종월년(明宗元年)(1546)의 증축(增築)

태조(太祖)때 7간(7間)으로 창건되었던 종묘 정전은 약150년이 지난 명종월년(明宗元年)에 가서 증축되었는데 이 때 증축된 규모는 기존 건물의 좌우(左右)로 각 2칸씩을 더하여 칸이 늘어난 11간(11間)이었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 의하면, 처음에 종묘정전의 증축은 3간(3間)규모로 정하였으나 뒤에 1칸이 늘어난 4칸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우선, 명종월년 3월기묘일(22일)의 실록에 보면, 영의정 윤인경등이 왕께 아뢰기를 「중종대왕을 부묘할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종묘에는 조친(調遷)할 신위(神位)가 없고 또 공실(空室)도 없어서 부득이 새로 더 지어야만 부묘할 수 있습니다. 더 짓는다면 마땅히 종묘 동쪽에다 세칸을 지어야 할 것이며 역사를 지적할 시기와 옮겨 모실 시기도 미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사세가 그렇다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어서 동년(同年) 4월(4月) 갑오일(5일)에는 예조판서 윤개등이 묘제(廟制)에 대하여 서계(書啓)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종묘제도를 상고해 보니, 『오례도설(五禮圖說)』에는 비록 태조1위에, 소(昭)와 목(穆)이 각각 2위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세워져 있는 태실(太室)은 7간(7間)에 동서로 각각 2간의 협실이 있는데 태조를 모신 1간이 1실(1室), 태종(太宗)을 모신 제2간이 2실, 세종(世宗)을 모신 제3실이 3실, 문종(文宗)을 모신 서쪽 협실이 4실, 세조(世祖)를 모신 제4간이 5실, 예종(睿宗)을 모신 제6간이 7실, 덕종(德宗)을 모신 제7간이 8실이 됩니다....(중략)...

이제 중종대왕을 부묘(祔廟)하게 되면 4세를 합하여 4친(4親)의 사당이 되는데, 4세 6왕이 바로 2소(2昭)·2목(2穆)의 자리로 모셔져서 위로는 조친할 신주가 없고 아래로도 새로 부묘할 신실(神室)이 없습니다. 그러니 증축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종을 새로 부묘하고 나면 인종을 또 부묘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3간은 반드시 증축해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여 왕의 허락을 얻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8일 후인 동월(同月)기유일(23일)의 실록에는 당시의 영의정 윤인경등이 다시 왕에게 「종묘가 좁아서 문종(文宗)께서 협실에 들어가게 되어 사람들이 다 미안하게 여깁니다. 지금 만약 좌우로 나누어서 4간을 가설한다면 문종도 정실(正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뢰어 왕이 「모두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위의 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종월년의 종묘 증축은 당초 3간(3間)을 늘리기로 하였다가 문종(文宗)이 협

1) 명종실록(明宗實錄), 원년(元年)4월(月) 갑오(甲午), 『종묘의례(宗廟儀軌)』(숙종23년) 등.

실에 들어가게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 끝에 1칸을 더 늘리어 4칸을 증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명종때의 종묘 증축에 대하여는 종래 3칸(3間)만이 늘어난 것으로 잘못알려져 왔으며<sup>2)</sup>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왕조실록의 앞서 윤개 등이 서계(書啓)한 기사만을 위주로 판단을 내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오기(誤記)에 있는 듯하다. 증보문헌비고, 권(卷)55, 종묘조에는, 「명종원년증건태묘삼간(明宗元年增建太廟三間). 칠월임술봉안신주어인정전(七月壬戌奉安神主於仁政殿)」이라고 적고 이어서 예조판서 윤개 등의 상기 실록에 있는 서계를 옮겨 실었는데 이는 후대의 문헌비고 편자가 그 뒤에 있는 영의정 윤인경의 계(啓)를 참고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

### (3) 광해즉위년(光海即位年(1608))의 종묘 재건 규모

종묘는 임진왜란시 소실되고 그 재건은 선조41년(宣祖41年)(1608) 즉 광해즉위년에 구제(舊制)에 따라 정전 11간(間)규모로 재건되었다.

조묘 정전은 명종(明宗)때 11간(間)으로 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선조실록(宣祖實錄), 2년(年) 4월(月) 술인조(戊寅條)에도 「(선왕(先王인 명종(明宗)의)부묘(祔廟)가 임박하였는데 종묘는 본시 11칸으로 10실(室)은 차있고 1칸이 허실(虛室)로 있으니 명종(明宗)은 허간에 부(祔)하여야 할것입니다.」 라는 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선조(宣祖)24년(年)(1592)에 왜란으로 종묘가 소실된 이후 그 재건은 왕실(王室)의 숙원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선조37년부터 착수되었으니 실행에는 옮겨지지 못하다가 선조40년에 가서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종묘제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당시의 논의는 종묘제도를 중국(中國)의 고례(古禮)에 맞추자는 주장과 기존의 제도대로 하자는 주장 등이 엇갈렸으며, 결국 선조40년 3월에 왕은 「논의는 이미 이처럼 같지 않고 이제 비록 정의(廷議)를 하였으나 뜻이 갈라짐이 더할 뿐이니 구제(舊制)를 따라 중수(重修)하라.」<sup>3)</sup>는 명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종묘 정전은 명종때의 규모인 11간(間)으로 재건되었는데 이 때의 건축규모에 대하여는 숙종(肅宗)23년(年)(1726)에 가서 4간(間)을 늘리었다. 그 결과 종묘 정전은 15간(間)의 건물이 되었다. 이때의 공사내용에 대하여는, 공사와 동시(同時)에 공사전말을 기록으로 남긴 『종묘개수도감의궤(宗廟改修都監儀軌)』(영조(英祖)2년(年), 규장각 및 한국국정문화연구원도서관 소장)가 전하고 있어 그 상세한 경위는 알 수 있다.

『종묘개수도감의궤(宗廟改修都監儀軌)』에 의하면 영조2년의 종묘 증축은, 그 전묘(前廟)에 3칸(間)만을 증축키로 계획하였다가 이듬해에 1칸(間)을 더 늘리기로 결정하여 그 해 3월에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때 4칸(間)의 증축은 기존의 태실(太室)11칸(間)을 그대로 두고 그 동(東)쪽으로 4칸(間)을 첨조(添造)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동(東)편에 원래 있던 제기고(祭器庫(협실(夾室))), 동월랑(東月廊), 동문(東門), 수복방(守僕房)이 모두 원래의 위치에서 동편으로 퇴건(退建)되었으며 정전 외곽 울타리 정면에 있던 신문(神門)3칸(間)도 정전의 중심(中心)이 옮겨짐에 따라 동편으로 이동되었다.

동(同)의궤(儀軌)의 계사조(啓?條), 을사년(乙巳年)(영조원년(英祖元年)) 8월(月)27일(日)의 기사에는 당시 공사의 책임을 맡은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왕(王)에게

2) 종묘정전이 명종때 3칸만 증축되었다고 하는 기사는 『서울특별사』(고적편)(1963) 및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제1권(1977)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문화유적편(1988)에는 4칸으로 바로 잡혀졌다.

3) 선조실록(宣祖實錄), 40년(年) 3월(月) 을축조(乙丑條)

「명년(明年)의 (경종(景宗의)) 국상후(國喪後)에 태묘(太廟)에 부(?)하는 예(禮)를 행하여야 하겠는데, 태묘(太廟)가 좁고 봉안(奉安)할 곳이 없으니 반드시 다시 첨조(添造)한 연후라야 봉안(奉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臣)이 태묘(太廟)의 가을 수개시(修改時)에 호조판서 신사철(申思喆)과 그 지형을 살펴보니 3간(間)을 첨조(添造)하여 봉안(奉安)할 만 하며 그렇게 하면 동문(東門)과 수복방(守僕房)이 모두 물러나 앓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뢰어 공사 허락을 얻는 대목이 보인다. 그런데 이듬해인 병오년(丙午年(영조2년))에 들어서서 정월(正月)11일(日)에 왕(王)은 도감(都監)의 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에게 「대명집례(大明集禮)를 보니 그 간수(間數)는 비록 한가지로 논(論)할 수 없으나, 주(周)에서는 처음 5묘(廟)였고 후에 7묘(廟)가 되어 문무(文武)로 세실(世室)이 되었다. 한(漢)은 7묘(廟)제도를 따르지 않고 8묘(廟)에 당하여 9묘(廟)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후의 전(殿)이 모두 11실(室)이 되었는데 이를 보면 모두 양수(陽數)를 따르고 있다. 지금 14실(室)로 한 것은 어찌된 것인가」고 물었다. 이후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왕(王)은 전년(前年)의 3간(間) 첨설(添設)에 1간(間)을 더하여 4간(間)을 증축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묘 정전의 간수(間數)는 15간(間)으로 되었던 것이다.

공사(工事)는 1월(月)13일(日)에 시작되어 2월(月)21일(日)에는 상량하였으며 3월(月)19일(日)에 필역(畢役)되고 4월(月)3일(日)에는 공사도중 경덕궁에 임시로 모시었던 신위(神位)를 다시 종묘에 모시는 봉환(奉還)이 이루어졌다.

이때 4간(間)을 증축과 아울러 정전 동편에 있던 제기고2간(祭器庫2間), 동월랑5간(東月廊5間), 동문3간(東門3間), 종형실3간(從亨室3間)과 정면의 남신문3간(南神門3間)이 퇴건(退建)되었으며 아울러 정전 앞계단들의 이동과 월랑(月廊)의 개축(改築)이 있었다.

#### (5) 헌종(憲宗)2년(年)(1836)의 증축(增築)

영조(英祖)때 15간(間)으로 늘어난 종묘 정전은 그로부터 다시 110년이 지난 헌종2년에 가서 증축(增築)되었는데 이 때도 4간(間)을 늘리었으며 그에 딸라 종묘 정전은 19간9실의 규모가 되었고 이 건물규모는 그 후 증축(增築)이 없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헌종2년의 종묘 증축공사에 대하여도 그 상세한 공사전말을 적은 당대의 사료(史料)인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헌종(憲宗)2년(年))(규장각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이 전하고 있다. 동(同) 의궤(儀軌)의 계사조(啓?條)에 의하면, 이 때의 공사는 헌종원년(元年) 6월(月)에 이듬해를 기하여 정전을 증축할 것을 정하였으며, 공사를 전담한 도감(都監)의 책임자로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상규(沈象奎)가 임명되고, 도제조 심상규는 11월(月)4일(日)에 가서 소계(所啓)하여, 「태묘(太廟) 을사년(乙巳年)(영조원년(英祖元年))에 하교(下敎)를 받들어 동변(東邊)4간(間)이 증건(增建)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이에 의하여 거행하여 옛 방법을 존중하고자 감히 양달합니다.」라고 하며 당시 수렴청정하던 대비(大妃)의 허락을 얻는다. 즉, 헌종때의 증축은 영조(英祖)때의 예(例)에 따라 4간을 늘리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때에도 공사 방법은 기존의 15간(間)을 그대로 두고 동변(東邊)으로 4간(間)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존에 동편에 있던 동문(東門), 어제실(御齊室)·수복방(守僕房)·동월랑(東月廊) 등이 모두 퇴건(退建)되고 또한 정면(正面)중앙(中央)에 있던 남신문(南神門)과 그 동편에 정조(正祖)때 세웠던 공신당(功臣堂)도 모두 퇴건(退建)되었다.

공사(工事)는 헌종2년 정월(正月)13일(日)에 정전의 동변(東邊)1간(間)과 제기고(祭器庫((협실(夾室)) 2간(間)의 파옥(破屋)으로 시작되어 (이것은 정전의 동편으로 4간(間)을 허물어 낸 것이다.), 2월(月)12일(日)에는 정전(正殿)의 기지(基地)를 쌓는 공사가 완료되

어 새로이 초석(礎石)을 놓았으며, 2월(月)19일(日)에는 입주(立柱)를 환안(還安)하였다.

동의궤(同儀軌)의 3소조(所條)에는 이때 건물전체에 대한 도회(塗灰)를 하였음을 적고 도회(塗灰)대상이 된 신구 건물(新舊)(建物) 모두의 간수(間數)를 아래와 같이 적었는데 이 건물규모는 결국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종묘 정전 일곽의 건물규모인 것이다.

종묘 정전(宗廟 正殿)	19간(間)
제기고(祭器庫)	2간(間)
서고(書庫)	2간(間)
동서월랑(東西月廊)	各5간(間)
공신당(功臣堂)	9간(間)
수복방(修僕房)	4간(間)
전사청(典祀廳)	36간반(間半)
저간(杵間)	3간(間)
재살청(宰殺廳)	3간(間)

그런데 헌종2년의 종묘 증축에 대하여는 종래에, 이 때에 2간(間)만이 증축되고 나머지 2간(間)은 고종년간(高宗年間)의 수리시(修理時)에 증축되어 현재의 19간(間)이 된 것이라고 잘못 기술(記述)되어 왔었다.<sup>4)</sup> 이러한 부정확(不正確)한 기술(記述)이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의 헌종때의 종묘증건에 대한 오기(誤記)에서 기인(起因)되는데, 동서(同書), 종묘조(宗廟條)에 종묘 태실(宗廟 太室)은 헌종때에 2간(間)이 증건(增建)되었다고 적은 것이다. 우연히도 이 헌종때의 증건공사규모에 대하여는 헌종실록(憲宗實錄)에도 자세한 기록이 없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도 증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관계로 근년에 종묘 증축과정을 다룬 많은 문헌들이 상기 동국여지비고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헌종때 2간(間)이 증건되어 정전은 17간(間)이 된 것으로 적고 현재와 같은 19간(間)이 된 것은 아마도 고종(高宗)7년(年)에 있는 수리시(修理時)에 2간(間)이 증축된 결과가 아닌가 추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종실록(高宗實錄)에는 종묘의 증축에 대하여는 아무 기록이 없으며, 상기 『종묘영녕전증건도감의궤(宗廟永寧增建都監儀軌)』에 당대(當代)의 원사료(原史料)로써 종묘 정전4칸을 증축하는데 따른 제반회의기록과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까지 명확하게 밝혀 놓아 헌종때의 종묘 정전이 19간(間)이 되었음을 명기(明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종(高宗)때의 수리(修理)는 단순한 건물수리에 그치고 증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 3. 영녕전의 건물규모의 변천

(1) 세종(世宗)3년(年)(1421) 창건(創建)에서 광해즉위년(光海即位年)(1608)의 재건(再建)까지의 건물규모(建物規模)

태묘(太廟)의 조묘(祖廟) 즉 별묘(別廟)로 세워진 영녕전(永寧殿)은 세종(世宗)3년(年)에 본전(本殿)4간(間)에 동서(東西)협실(夾室) 각3간(間)으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대(世宗代)에 와서 종묘정전과는 별도로 영녕전을 세우게 된 것은 중국송조(中國宋朝)에서 왕(王)의 사조(四祖)를 추숭(追崇)하여 별묘(別廟)에 봉사(封祀)한 예에 따라,

4) 『서울특별시사』(고적편) 및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등

태조(太祖)의 4조(祖)와 종묘에 모시지 않는 선왕(先王)의 신실(神室)을 마련키 위하여 한 것으로 세종실록(世宗實錄)3년(年)8월(月) 을미일(乙未日(일))의 기사에, 「예조에서 계하기를, “……, 이제 우리나라 별묘에는 정전사간(情田四間)을 세우고, 동서로 각각 협실 한칸씩을 지을 것이요, 그 나머지 담이나 섬들같은 것은 종묘와 같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영녕전은 창건시 정전4칸에 좌우 한칸씩의 협실을 갖춘 규모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성종(成宗)5년(年)(1474)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권(卷)1, 단묘도설(壇廟圖說)에는 이 책이 편찬된 성종대(成宗代)의 영녕전의 건물모습이 그림-3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sup>5)</sup> 이 그림에서 영녕전은 정전(正殿)간(間)에 동서(東西)에 협실(夾室)이 2간(間)씩으로 나와있는 것이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함께 성종5년에, 조선왕조의 사회전반의 유교적 예(禮)와 질서를 규정할 목적으로 편찬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물(書物)이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문구나 삽입된 그림은 상당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인용한 동서(東西)의 종묘 정전의 그림은 창건시의 실록의 기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서(同書)에 영녕전이 정전4칸에 좌우 협실 각2칸으로 묘사된것도 단순한 그림제작상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세종3년(1421)에 창건된 영녕전이 국조5례의가 편찬되던 성종(成宗)5년(年)(1474)이전의 어느때인가에 협실 각1칸씩 증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불과 53년(年) 미만의 시차(時差)를 두고 협실의 증축공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창건때의 건물규모가 세종실록에 적혔듯이 정전4칸에 좌우 협실 각1칸이 아니고, 실제로는 좌우 협실 각2칸으로 창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영녕전의 창건규모는 세종3년8월5일의 예조의 계(啓)로 정하여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명종원년(明宗元年)의 종묘 증축공사때의 예를 보면 처음 3간(間)으로 결정되었던 건물규모가 며칠후에 다시 4간(間)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영녕전도 처음 결정된 규모가 실제 준공되는 과정에서 협실(夾室)을 각1칸씩 늘리어 완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외관구성성상(外觀構成上)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엿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4칸의 정전이 있고 그 좌우에 지붕을 한단 낮춘 협실이 나란히 놓일 때, 협실이 1칸만 있어 가지고는 정전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협실이 왜소하게 되어 안정(安定)된 외관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양측의 협실은 정전4칸에 조화를 갖추기 위해 각2칸씩 지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영녕전의 규모에 대해서 「영녕전(永寧殿)」의 태실(太室)은 본시 4간(間)인데 후에 조주(跳主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동서협실(東西夾室) 각2간(間)을 첨건(添建)하였다.」는 또 다른 견해를 적었다. 이 기사에서는 영녕전이 처음에 태실(胎室)4간(間)만 있던 것을 후에 협실(夾室)2간(間)을 증건한 것으로 적었는데 이것은 앞의 문헌들과는 또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상이(相異)한 기록 내용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문제의 제기로만 끝내기로 하고, 다음은 창건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녕전에 관련된 몇 가지 문헌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영녕전은 광해즉위년(光海即位

5) 본고(本稿)에서 인용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서례(序例)」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것임.

年)에 재건될 때 정전4칸에 좌우협실 각3칸식으로 도합 10칸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창건때의 규모에서 재건대의 규모까지의 변천과정에 대하여는 사료(史料)의 부족으로 알 수가 없다.

광해즉위년(光海即位年)(1608)의 재건규모에 대하여는 비록 간접적인 사료(史料)이기는 하지만 현종(顯宗)8년(年)(1667)의 영녕전 개축시(改築時)에 편찬된 『영녕전수개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현종8, 규장각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에서 그 내용을 알아 낼 수 있다. 이 의궤는 광해즉위년의 재건후 약60년후에 영녕전을 개축하면서 그 공사전말을 적은 문헌인데, 개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개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축전의 건물규모인 광해즉위년의 건물규모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동(同) 의궤(儀軌)에 의하면 영녕전의 개축공사는 현종4년(1663)에 논의가 있었는데, 이 때 개축을 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가지 안이 제안된 바 있다. 즉, 영녕전수개도감의궤, 계사조(啓?條)의 3월(月)25(日) 기사에 「수개하는 공역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였고, 의견이 셋이 있으니, 혹자는, 당초 사조(四祖)를 봉천(奉遷)할 때 다른 조위(?位)는 없었고 좌우 익실을 만든 것은 신위(神位)를 봉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 수개(修改)를 함에 당하여는 정전(正殿)의 서쪽에 6간(間)을 연이어 지어내고 6간(間)의 서쪽에 익실을 꾸미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하고, 혹자는, 선왕(先王)의 제도는 이제와서 하나라도 바꾸어서는 안되는데 (앞의 안과 같이) 종묘(宗廟)의 제도를 따른다면 종묘가 둘이 되는 것이니 이를 따로 영녕(永寧)이라 칭하게 된 뜻에 맞지 않고 예(禮)에 어긋나므로 만약 좌우(左右) 익실3칸에다가 1간(間)씩을 첨조(添造)하여 도리(道理)방향으로 늘린다면 구제(舊制)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진퇴시(進退時) 여유도 생길 것이므로 편당할 것이라고 하고, 혹자는, 익실에서 후퇴간(後退間)이 없는데 북벽(北壁)에 감실(龕室)을 설치하여 전면(前面)이 좁게 되었으므로 지금 만약 전후퇴간(前後退間)을 함께 설치한다면 정전(正殿)에 비하여 조금 척수(尺數)가 함하여지므로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세가지 안은 후에 개축공사를 착공하면서는 결국 두 번째 안이 채택되었는데, 위의 논의 가운데서는 개축치전의 건물규모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 즉, 두 번째 안에서 기존건물의 좌우 익실3칸에 각1칸씩 첨조하는 안이 제안되고 있어서 개축전에 익실은 좌우 각 3칸임을 짐작케 한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는 기록은 동(同) 의궤(儀軌)의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종8년에 들어와 개축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적은 기록가운데 「전비물건소화질(前?物件燒火秩)」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구 건물에 설치하였던 기물(器物)이나 벽·바닥에 깔았던 지의(地衣)등을 불에 태워버리는 품목을 적은 것으로, 여기에 「정전사간(正殿四間), 탑하황화석지의사부(榻下黃花席地衣二浮), 동익실삼간(東翼室三間), 탑하황화석지의삼부(榻下黃花席地衣三浮), 상전황화석지의일부(床前席地衣一浮), 서익실삼간(西翼室三間), 상전황화석지의일부(床殿黃花席地衣一浮)」라고 적혀있다. 즉, 구 건물에 있던 기물등을 태워 없애는 범위가 정전4칸과 동익실3칸(東翼室3間), 서익실(西翼室)3칸이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동서(東西), 계사조(啓?條)의 정미(丁未)2월(月)24일(日)의 기사에는 영녕전의 개축공사에 임박하여 전내(殿內)에 봉안중인 신위(神位)를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기는 일을 의논하면서 기존의 영녕전 건물이 10실(室)에 21신위(神位)를 모시고 있었음을

밝히었다. 즉, 이날의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소계(所啓)에 「영녕전의 이안시(移安時) 사용할 신련(神輦)은 예 1실(室)의 신위(神位)를 합봉(合奉)한다면 신련(神輦)은 10건(件)이면 되지만 1신련(神輦)에 1실(室)을 합봉(合奉)하는 것은 미안(未安)한 일인 즉, 4실(室)의 8신위(神位)를 먼저 이안하고 6실(室)의 13신위(神位)를 나중에 봉안하면 13신련(神輦)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왕의 허락을 얻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도 현종8년 이전의 영녕전이 10실(室)규모의 건물임이 확인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검토를 요하는 것은 상기 의궤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축이전 건물규모인 정전4칸가 양 협실3칸의 건물을 광해즉위년의 규모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광해즉위년에 재건되었던 영녕전은 그 후 전혀 증축이나 다른 변조 없이 현종초까지 존속되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광해즉위년은 1608년이고 현종의 즉위년은 1659년으로 그 사이에는 약 50년의 시차(時差)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시간적으로 재건에서 개축이 있기까지 기간이 불과 50년이며, 신위(神位)의 증가도 인조(仁祖)·효종(孝宗)의 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영녕전의 증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능하나, 그 보다 확실한 문헌적 뒷받침은 인조(仁祖)15년(年)(1637)에 작성된 『종묘수리도감』(규장각 소장)에 이미 이 해에 영녕전은 10실(室)을 갖춘 건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긴 점이다.

동서(東書)는 인조15년에 종묘와 영녕전에 봉안중인 신위(神位)를 수리하는 내용을 다룬 것인데, 여기에 영녕전에 「제7실(第七室)」 「제9실(第九室)」이 있음을 적고 있다. 인조(仁祖)는 광해군의 바로 다음 왕이며 광해군의 재위기간은 불과 15년으로, 그 사이에 영녕전의 증축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2) 현종(顯宗)8년(年)(1667)의 개축(改築)

광해즉위년에 재건되었던 영녕전은 현종8년에 개축공사가 있었는데 이 때 양 협실(夾室)각 1칸씩을 늘리어 정전(正殿)4칸(間)에 양(兩) 협실(夾室) 각(各)4칸(間)의 건물규모로 되었다.

이 해의 공사에 대하여는 앞에서 인용한 『영녕전개수도감의궤(永寧殿修改都監儀軌)』에 공사의 전말이 상세히 나와있는데, 공역의 일정(日程)을 보면

이 안(移安)	정미년(丁未年)	윤(閏)4월(月)	22일(日)	신시(申時)
파 옥(破屋)			동일(同日)	미시(未時)
개 기(開基)		5월(月)	6일(日)	묘시(卯時)
종 초(定礎)		동월(同月)	17일(日)	묘시(卯時)
입주(立柱)·상량(上樑)		동월(同月)	30일(日)	인시(寅時)
필 역(畢役)		7월(月)	6일(日)	

이었다.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정전4칸·양 익실 각3칸의 기존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이 정전4칸·양 익실 각4칸을 개축(改築)하는 것이었으며 부속건물들도 모두 개축되었다. 동(同) 의궤, 3소조(所條)의 원청(?靑) 및 도회(塗灰) 대상으로 명기(明記)된 개축된 건물규모는 아래와 같다.

정전급좌우익실(宗廟及左右翼室)	48칸(間)
동서월랑(東西月廊)	10칸(間)
제기고(祭器庫)	6칸(間)
서고(書庫)	2칸(間)
재살청(宰殺廳)	2칸(間)

전사청(典祀廳)	5간(間)
숙설청(熟設廳)	2간(間)
동문(東門)	3간(間)
남문(南門)	3간(間)

(위의 건물 규모에서 정전급좌우익실(正殿及左右翼室)48간(間)은 정면(正面)12간(間), 측면(側面)4간(間)을 합한 결과이며 동서월랑(東西月廊)10간(間)은 동서각(東西各)5간(間)씩의 랑(廊)을 가리킨다.)

당시의 영녕전 건물규모는 숙종23년에 간행된 『종묘의궤(宗廟儀軌)』에 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기 기록과 일치한다.

### (3) 헌종(憲宗)2년(年)(1836)의 증축(增築)

현종8년(1667)에 정전(正殿)4간(間) 동서익실(東西翼室) 각(各)4간(間)으로 개축되었던 영녕전은 그로부터 169년 후인 헌종2년에 들어와 마지막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의 증축규모는 기존 건물에 동서익실(東西翼室) 각(各)2간(間)씩을 증건(增建)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영녕전의 건물규모는 정전(正殿)4간(間)에 동서익실(東西翼室) 각6간(各6間)이 되었으며 이 건물규모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헌종2년의 증축공사는 종묘 정전과 함께 거행되었으며 당시의 공사내용은 앞에서 소개한 『종묘영녕전증건도감의궤(宗廟永寧殿增建都監儀軌)』에 상세히 적혀있다.

동(同) 의궤(儀軌)의 승전조(承傳條)에는 호조(戶曹)의 소계(所啓)로 종묘와 함께 영녕전의 증건에 대하여도 대왕대비(大王大妃)의 허락을 얻는 기사가 나오며(을미년(乙未年), 6월(月), 20일(日)), 이어서 증건되는 건물규모에 대하여는 전(前)에 즉 헌종8년에 「동서각이간당위증건(東西各二間當爲增建)」한 바에 따라 「준구지도(遵舊之道)」, 즉 옛 방법을 존중하여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기사(을미년(乙未年), 11월(月) 14일(日))가 보인다. 한편 이듬해인 병신년(丙申年)(헌종2년) 정월(正月)20일(日)에는 증건방법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도제조(都提調)의 계(啓)에 「영녕전의 동편은 지형이 좁아 정전(正殿) 좌우 각2간(間)을 이제 증건하려고 하니 기지(基地)도 넓게 뻗어야 하겠은즉 전사청(典祀廳) 역시 따라서 이건(移建)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여, 이때의 공사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동서(東西) 양 끝으로 2칸씩을 붙여 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준다.

공역은 대체로 종묘 정전과 같이 진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 때 완성된 건물규모를 동(同) 의궤(儀軌)의 3소조(所條) 도회(塗灰)대상에서 적으면 아래와 같다.

영녕전(永寧殿) 정전(正殿)	16간(間)
동서월랑(東西月廊) 각	10간(間)
남신문(南神門)	3간(間)
동문(東)	3간(間)
제기고(祭器庫)	6간(間)
수복방(修僕房)	2간(間)
전사청(典祀廳)	5간(間)
어제실(御齊室)동서협실(東西夾室) 합(合)	15간(間)

이 건물규모는 현재 영녕전 일곽의 건물과 기본적으로 일치(一致)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녕전은 헌종2년에 증축된 이후 더 이상의 증축 없이 오늘까지 존속해 오고있음을 알 수 있다.

#### 4. 맺는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종묘(宗廟)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의 창건(創建)에서부터 최종적(最終的)인 증축(增築)까지의 과정(過程)을 역대 왕조실록(王朝實錄)과 공사관련 의궤서(儀軌書) 및 기타 문헌(文獻)들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양 건물의 증축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종묘 정전의 경우,

(1) 태조(太祖)4년(年)(1395)의 창건규모는 정전(正殿)7칸(間)에 좌우협실(左右夾室) 각(各)2칸(間)이었다.

(2) 명종원년(明宗元年)(1546)에 첫 번째 증축이 있었는데 이 때는 정전 좌우로 4칸(間)을 늘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전 규모는 도합 11칸(間)이 되었다.

(3) 임진왜란으로 종묘가 소실(燒失)되어 선조(宣祖)41년(年)(1608)에 재건(再建)에 착수하여 그해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면서 완성(完成)되었는데 이때의 건물규모는 명종(明宗)때의 구제(舊制)를 따라 정전11칸(間)이었다.

(4) 영조(英祖)2년(年)(1726)에 다시 증축이 있었으며 이 때는 정전(正殿)의 동변(東邊)으로 4칸(間)을 늘리었다. 따라서 정전은 15칸(間)이 되었다.

(5) 헌종(憲宗)2년(年)(1836)에 종묘 정전에 대한 마지막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도 기존 정전(正殿)의 동변(東邊)으로 4칸(間)을 늘리었다.

이에 따라 종묘 정전은 현재 남아있는 바와 같이 모두 19칸(間)의 건물이 되었다.

다음 영녕전(永寧殿)의 경우를 보면,

(1) 창건(創建)은 세종(世宗)3년(年)(1421)에 있었으며 규모는 정전(正殿)4칸(間)에 동서협실(東西夾室) 각(各)1칸(間)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창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전(前) 사이에는 협실(夾室) 규모의 증축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아직 불분명(不分明)하다.

(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영녕전은 광해즉위년(光海即位年)(1608)에 재건되었는데 그 규모는 정전4칸에 좌우협실 각3칸으로 도합10칸이었다.

(3) 현종(顯宗)8년(年)(1667)에 들어와 영녕전은 구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게 되었으며 이 때 기존 규모에서 좌우 협실 각1칸을 늘리어 정전 4칸에 좌우협실 각4칸 도합 12칸 건물로 되었다.

(4) 헌종(憲宗)2년(年)(1836)에 들어와 종묘정전의 증축과 함께 영녕전도 최종적인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는 기존건물에 좌우협실 각2칸씩 늘리어 정전4칸 좌우협실 각2칸씩 늘리어 정전4칸 좌우협실 각6칸 도합 16칸 건물로 하였다. 이 규모는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상의 양 건물의 증축과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1이며 여기에 각 시대의 증축내용을 밝혀주는 문헌(文獻)들을 참고로 밝혀두었다.

표-1, 조선시대(朝鮮時代) 종묘정전(宗廟正殿) 및 영녕전(永寧殿)의 건물규모변천(建物規模變遷)

[宗廟正殿]

年 代	工 事 內 容	建 物 規 模	典 據
太祖 4年 (1395)	創 建	太室(正殿) 7間, 左右來室 各2間	太祖實錄
明宗 元年 (1546)	增 築	正殿 11間	明宗實錄
光海 卽位年 (1608)	再 建	正殿 11間	宣宗實錄 宗廟儀軌(肅宗23)
英祖 2年 (1726)	增 築	正殿 15間	宗廟改修都監儀軌 宗廟儀軌實錄(純祖2)
惠宗 2年 (1836)	增 築	正殿 19間	宗廟永寧殿增建都監儀軌

[永寧殿]

年 代	工 事 內 容	建 物 規 模	典 據
世宗 3年 (1421)	創 建	正殿 4間 東西來室 各1間 (東西來室 各 2間)	世宗實錄 國朝五禮儀序例
光海卽位年 (1608)	再 建	正殿 4間 東西來室 各 3間	永寧殿改修都監儀軌 宗廟修理都監
顯宗 8년 (1667)	改 築 (增 築)	正殿 4間 東西來室 各 4間	永寧殿改修都監儀軌
惠宗 2년 (1836)	增 築	正殿 4間 東西來室 各 6間	宗廟永寧殿增建都監儀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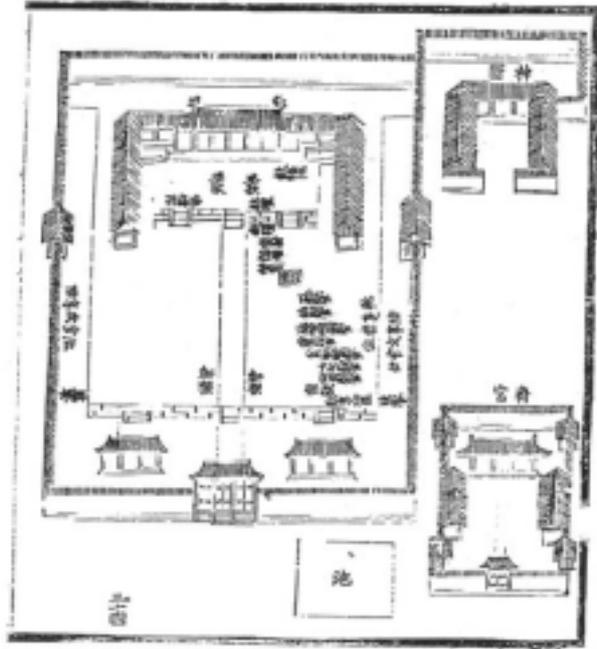


그림-1. 成宗代의 宗廟圖(『國朝五禮儀序例』에서)

그림-1. 成宗代의 宗廟圖(『國朝五禮儀序例』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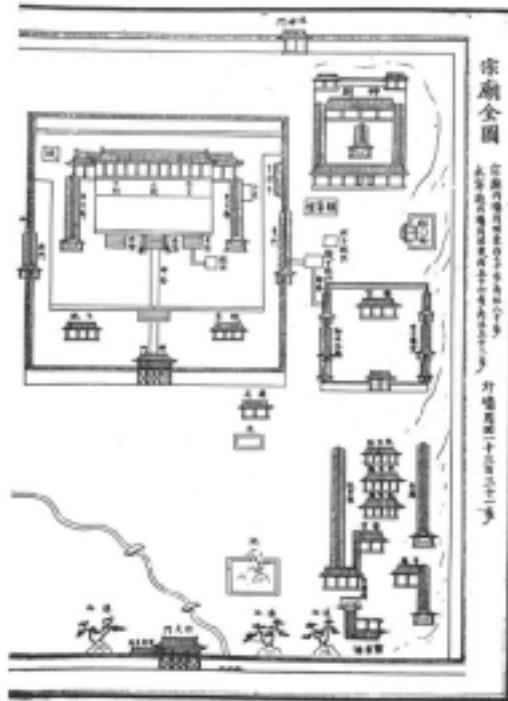


그림-2. 肅宗代의 宗廟圖(『宗廟儀軌』에서)

그림-2. 肅宗代의 宗廟圖(『宗廟儀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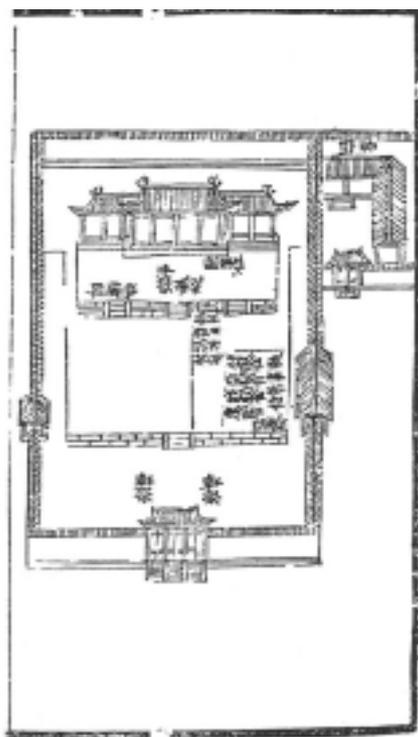


그림-3. 成宗代의 永寧殿圖(『國朝五禮儀序例』에서)

그림-3. 成宗代의 永寧殿圖(『國朝五禮儀序例』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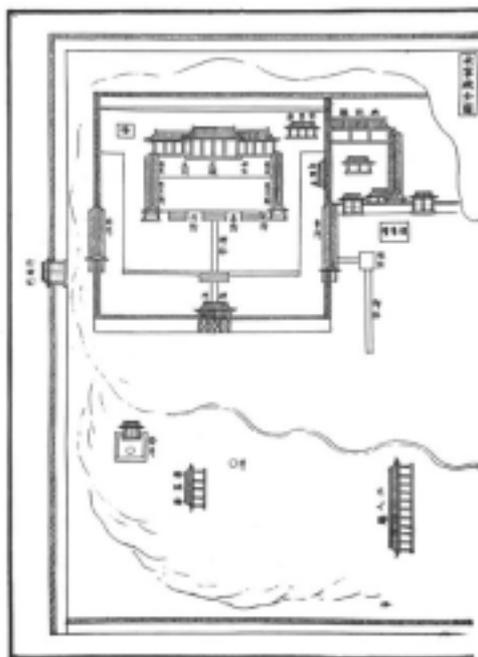


그림-4. 肅宗代의 永寧殿圖(『宗廟儀軌』에서)

그림-4. 肅宗代의 永寧殿圖(『宗廟儀軌』에서)